

2024년 8월 7일(수요일)
빠당시, Indonesia.

보내는 이 : 정이브라힘, 김사라(예림,유신) 올림
이메일 주소 : jjs1026@gmail.com/ 카톡ID : jjs1026

살~롬!! 그 동안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신지요? 한국은 이상기후 때문인지 이른 폭염과 홍수까지 겹쳐 많은 피해와 사상자가 나왔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늘 두 손 모아 기도하건대, 나라가 안정되고, 공동체가 평안하며,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두 달 동안도 개인생활이나 사역활동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역에 관련된 일들만 간추려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찬찬히 읽으시고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캠퍼스 및 청년사역(안달라스 대학생들)

▶여청년 <빌라>(아빠 인드라, 엄마 미다, 쌍둥이 언니 요나, 요니, 남동생 라삐)

빌라 여청년은 계속 信仰훈련을 잘 받으며 聖靈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10장씩 읽고, 따로 큐티훈련을 받고, 매일 저희랑 조금씩 복음서의 내용을 배워가며 자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큐티를 진지하게 잘 하는지, 의미 그대로 정확하게, 은혜롭게, 또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자신의 허물을 자백하고 몸부림치면서,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며 하는지, 때론 큐티한 내용(고백)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Mu슬림들이 처음 회심했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주님을 찬양하는 禮拜의 삶인데, 그것은 아잔소리나 솔라트를 통해 아랍어로 반복해서 위대하신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느님을 운율을 넣어 부르는 게 이들의 찬양의 전부이기에, 저희처럼 드리는 찬양은 많이 어색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빌라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계속 모임을 갖고 기도를 하다가 골 3장과 고전 14장에 예배시 모일 때에 찬양하는 것과 계 7장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말씀대로라면 빌라도 찬양을 배워 함께 찬양禮拜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 주에 한 곡씩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너무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매일 혼자 있을 때에도 찬양을 드리면서 스스로 은혜를 받고, 심지어 한국어로도 제법 찬양을 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이웃에 자칫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한국어와 인니어를 섞어서 부르거나 저희집에서 공부할 때는 한국어로 맘껏 부르다보니, 어느새 그도 한국어로 잘 따라 부르기까지 되었습니다. 할렐루Yaa!!

처음 이 땅에 비전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느님이 그 약속의 말씀(계7장)대로 이루어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더욱이 저희의 기도로 빌라가 든든한 사역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요! 이 땅과 동족 미남족을 위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주님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봅니다.

▶여청년 <딜라>(수석졸업, 영어학원강사) (엄마 데위, 동생들 아린, 따샤, 남동생 라삐, 기나, 아이니)

지난번 소식을 잘 읽으셨다면, 딜라의 소식도 궁금하실텐데요. 그 이후 2주를 기다렸다가 저희가 다시 딜라에게 연락을 하고(빌라도 이미 딜라와 구면인지라 빌라까지 오라고 초청해서) 저희집으로 놀러오라고 했습니다. 스파게티와 해물볶음밥, 망고주스를 직접 갈아 대접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잼나게 나누다가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너 혹시 지난번 삼촌이 전해 준 자료(M전도자료)를 자세히 읽어봤느냐? 그리고 소개해준 聖經앱도 깔아서 읽어봤느냐?”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자기가 얼핏 자료를 읽어봤더니, 구절이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더라면서 그래서 읽다가 그만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게 애써 둘러대는 핑계라는 것을 느꼈고, 아~~아직도 많은 ㄱㄷ와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재차 몇몇 중요한 얘기?를 덧붙여 전하며 자료와 聖經말씀을 꼭 읽어볼 것을 권면하고 그날의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 김사라 선생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 맛있는 음식과 좋은 분위기를 마련하고, 대화소재도 준비하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사진 한 장 찍는 것조차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사실 이곳에 살면서 모든 순간을 사진이나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들이 많지만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원하고 바라고 ㄱㄷ할 때에, **딜라**의 입에서 “삼촌, 제가 聖經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어요.”라고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 **청년교수 <뽀지>**(안달라스대학 농학석사, 깔리만판섬 **람봉 망꾸랏대학 공무원교수**)와 **예비신부(아미)**

지난번 편지에 **뽀지** 형제와 오랜만에 만나 식사하며 담소하다가 아쉽게도 시간이 모자라 서로 못 다한 얘기를 남겨두고 다시 헤어졌다고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후 저희가 ㄱㄷ하면서 그가 고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연락할 때가 되었다 싶어 연락을 취하려던 그때에, 공교롭게도 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장소를 정하는데, 갑자기 소개할 사람이 있다면서 다른 사람이라 같이 나가도 되겠느냐고 묻길래 제가 누구냐고 했더니,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여성(**아미**자매)이 있다고 하면서 꼭 삼촌과 이모에게 소개하고 선을 한 번 보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케이, 좋다. 잘 됐네.’ 하면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만나보니 **아미**자매는 부잣집 공주같은 예쁜 아가씨였고,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정을 하고 있어 장래도 좋아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마도 **뽀지**형제가 좋은 직장을 가지게 되니까 좋은 혼처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냥 겉으로 보기에 시골 나무꾼과 선녀 같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이 되어 물었더니, 자기랑 결혼하면 과분하게 사치하지 않고 형편 되는대로, 남편과 자신의 수입에 맞추어 알뜰하게 살 것을 서로 약속했다고 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였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남의 아들 일에 미주알 고주알 지나친 관심과 걱정을 가지는가? 생각하실 건데요. 저희 생각에 언제라도 **뽀지** 형제가 주님께 돌아온다면, 그가 우스타드로, 지도자로, 어디든지 다니며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사명자로 살기를 기대하기에 이런 염려도 해보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무조건 밤늦게까지 시간을 꼭 비워두라고 부탁을 해서, Fuja라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후 자리를 옮겨 늦은 시간까지 우리는 해변 카페에서 담소하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얘기가 한참 무르익어갈 때쯤 장래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의 성공적인 삶에 대한 소재가 등장하자, 저는 얼른 주제를 구원과 천국의 삶과 연결시키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희는 작심하고 계획해서 꼭 전하고 싶은 얘기(?주님 얘기와 聖經을 읽어야하는 이유)가 있었기에, 그 두 사람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내심 불쾌해하며 어색해하든 말든 상관없이, 주제를 슬쩍 바꾸어 그 중요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사라 선생은 제 옆에서 맘속으로 그야말로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며 돕는 ㄱㄷ를 했고, 저는 그날 하고 싶은 얘기, 꼭 전해야 하는 그 얘기를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뽀지의 표정은 가끔씩 어색해하며 애써 불편한 마음을 감추는 것 같기도 했지만, 이제 헤어지면 다시 직접 만나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져 聖靈님 감동주시는 대로 그렇게 전하고 헤어졌습니다. 오히려 **아미** 자매는 신기하다는 듯 제 얘기에 관심을 가지며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씨를 뿌렸으니, 또 상황을 봐가며 물도 주고 기다려봐야겠지요. 아무쪼록 **뽀지**와 **아미** 자매도

왜 聖經을 읽어야 하는지 깨닫고, 용기를 내어 말씀을 읽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 건물이 아닌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며 (M지도자들과의 만남과 교제)

▶ **쌍까락 호숫가, 말랄로 마을** 이맘 말린(Malin)과 부인 이까사리, 그의 가족들, 친구, 이웃사람들.



호숫가 마을로 가는 길이 끊어져 한동안 그 지역으로 가던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겨 말린과 그의 마을 친구들은 계곡을 다니며 남는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 시기가 그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마을을 방문하기가 어려워 그 마을 소식이나 근황이 궁금하면 SNS를 통해 안부를 묻고 또 사진을 받아보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그가 낮아진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믿기에, 저희는 소망 중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려봅니다.

▶ **고등학교 종교선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하고 저희 **아플동네** 마스진에서 가르치는 **우스타드 “자스만”선생과 부인-“우스(은퇴교사)”**, 세 아들(각각 의사), 딸(케익 가게)

저희가 이곳 빠당에 정착하여 이웃을 사귀어갈 때 만난 우스타드 중 한 사람으로 저희에게 아랍어 문자를 가르쳐주시던 분이 **자스만**씨인데, 소식지에 자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고, 2년 전 아들결혼식에 참석을 하고는 조금 뜸하다가 이번에 이사를 하고는 거리가 더 가까워져서 그가 금요 솔라시간에 마스진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초대되어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 마을에 정착한 후 연세드신 분들과 교제를 하며 福音적 얘기를 나눌 기회를 엿보던 중에 이미 그분들은 사고가 굳어져 패러다임 전환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동안 젊은이들 위주로 만남을 이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자스만**씨와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데, 점잖고, 학식이 있고, 성품이 좋아,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어, 좋은 만남 가운데 기회를 타서 다시 시도해보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새 동네(부깃블림빙)의 꾸란 과외선생 우스타자(여성 종교교사) “까르밀라”부인과 남편 “안드레”씨**



저희가 **부깃블림빙**으로 새로 이사한 후에 자주 만나는 가까운 이웃들 중에 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부인 **까르밀라**는 **루마타 피즈**(꾸란공부방)에서 아이들에게 꾸란을 가르치는 **우스타자**이고, 남편 **안드레**씨는 물리학을 전공한 선생(휴직중인데 부인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다고)이라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김사라 선생이 상조계모임에 참여한 후에 뜻하지 않게 가까워져 서로 만남을 이어가던 중 그녀가 아직 나이가 25살밖에 안된 나이 어린 새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에게 아랍어문자와 꾸란을 배우라고 해서 저희가 난감해하고 있

는데, 무언가 주님의 뜻이 있는 듯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까르밀라** 부인은 고등학교까지 기숙형 종교학교 **뽀독 뽀산뜨렌**에서 공부하고 아랍어도 유창하다고 해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또 앞으로 주님 나라 위해 귀하게 쓰임 받을 예비된 인물인가? 하며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간섭하시는 주님 안에서 결코 우연은 없으니 무언가 뜻이 있으리라 여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젊은 부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새로운 주변(M)이웃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상조계모임, 말씀공부, ㄱㄷ모임

▶ 성격이 아주 밝고 씩씩하고 친절한 샤라 아주머니(남편 떼니, 큰딸 까르띠까와 큰아들 하난, 둘째딸 피오나, 막내아들 레즈끼)



서로 간에 내색한 적도 없지만 한 동안 관계가 소원했고, 만남도 뜸했던 샤라부인과 그 가정식구들과는 요즘 다시 자주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남편 떼니씨도 저희가 새로 이사한 집의 지붕수리(누수)를 위해 가끔 방문해서 도와주고, 부인 샤라아주머니도 장학금을 받거나 도움일이 있으면 저희집을 방문하고, 큰딸 띠까와 어린 동생들도 저희가 간식도 사주며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랑 샤라아주머니랑 서로 논의한 후 띠까가 영어학원엘 다니게 되었습니다. 원래 뭐든 열심히 하는 아이지만, 띠까가 새로운 각오로 나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지 그 열정이 참 예뻐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집 수리와 대학원 논문작성이 좀 마무리되면, 매주 띠까와 동생들을 집으로 불러 같이 특별한 공부?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도 계속 함께 ㄱㄷ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가까운 이웃들과의 상조계모임(장소-우스타드 이르완씨댁, 남녀 모두)과 시신처리특별교육모임(장소-우스타드 이르완씨댁, 부인들만)

지난 소식지에도 전해드린 것처럼, 새로 이사한 후 부깃블링빙 동네이웃들과 삽시간에 서로 친해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희에게 자기들 상조(장례)계모임에 함께 참여하지 않겠느냐고 요청을 해서 저희는 흔쾌히 승낙하고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일로 저희는 이곳 이웃공동체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이 계모임은 3개월마다 한번 씩 모이는데, 서로 음식도 같이 먹고, 우스타드를 통해 설교?(교육)도 듣고, 친밀을 다지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 중 누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장례가 나면, 서로 심방하거나 위로하고 조문하고, 또 모든 장례절차를 이 계에서 서로 도와 전적으로 다 치러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기를, 이브라힘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묻힐 거냐? 아니면 한국으로 가서 묻히길 원하느냐? 하길래 저는 이곳에 묻혀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나를 위해 누울 장소를 마련해줄 수 있느냐고 되물었더니, 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모친이 연세가 많아 곧 소천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한국까지 조문하러 올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다들 당연히 가야지 라고 해서 그러면 각자 항공권은 자비로 알아서 끊고 조문하러 오세요 라고 말했더니, 다들 박장대소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한편, 그 후 한 달 만에 한 여성 우스타자를 모시고 여성들만 모여 장례예법을 배우는 시신처리특별교육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인 중에 여성이 돌아가시면, 여성시신을 어떻게 씻기고, 수의를 차례대로 어떻게 입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염해서 처리해야하는지? 전체 장례절차와 필수적으로 언급하고 암송할 아랍어 꾸란구절 등, 실제장례절차를 교육받고 실습하는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샤라 선생이 참여해 전 과정을 배우고 이웃부인들과 교제하며 사진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사라 선생도 이런 모임에 참여해 이렇게 어울리는 일이 그리 편하지도 쉽지도 않고, 언어적으로 알아듣기도 어렵고, 문화적 정서적으로 부대끼며 힘들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그래도 이들과 함께 어울리겠다는 마음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주말 밤마다 이웃 남자들과 골목이나 가게에서, 혹은 간혹 주일 오후마다 만도아 슈쿠란(하지Haji나 가족결혼 등 어떤 기쁜 일에 감사기도 및 축하모임), 아끼까(Aqiqah) 잔치 (아이 정결예식-애기탄생 감사 및 축하)에 어울리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랍어와 미낭어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거쳐야 할 과정인줄 믿기에, 주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즐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저희와 이웃(수마프라섬 미낭까바우족 Mu슬림)을 위해 필요한 도고

1. 매일 예배와 큐티를 통해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저희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저희 부부가 매일매순간을 은혜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도록 보살펴주시되, 聖靈의 충만한 은혜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계속 은혜를 부으사 저희의 사역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순탄케 하옵소서.
2. 이곳 MK족을 품은 저희의 사랑이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킹덤비전이 흐려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브라힘과 사라가 새로운 이웃과 잘 어울리며 의미있는 교제를 하도록 인도하시고, 빌라자매가 聖靈이 충만한 가운데 믿음이 굳건하여 담대하게 福音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교제하고 있는 M선생들(주지사-마히엘디)(*유자르디)(*말린)(*줄)(*푸안)(*에리)(*라흐맛)(*자스만)(*안디)(*민다)(*리잘)(*밀라/안드레)과 아주머니들 (*사라)(*쉴)(*델피아)(*이께)(*이다)(*끼끼)(*페라)(*야스)(*자르)(*이이)(*수찌)(*나나)(*에라)(*엔띠)(*인드리)(*웨니)(*넝)(*아딜라), 주인부부(마스리와다르)의 가정과 그 가족들, (딜라)자매와 (뽀지)형제도 마음이 열려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3. 정이브라힘에게 지혜와 건강을 부어주사 이번 학기 논문작성과 발제도 잘 감당케 하시되, 비자나 모든 길이 계속 형통하도록 선히 인도해주옵소서! 이사한 셋집의 주인의 마음을 감동하사 지붕누수를 잘 고쳐주도록 그 마음을 감동하옵소서!
4. 이브라힘의 모친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소망을 갖도록. 사라의 모친은 몸이 불편하시지만 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딸 예림이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믿음과 삶이 더 건강하고 강해지도록 지켜주시고, 아들 유신이라도 졸업학기에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고 그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 후원 계좌번호 -----

농협(정★성) 703023-56-015967 우리(정★성) 1002-359-366943 하나(정★성) 167-890741-30807

★ 이 자료를 인터넷에는 절대 올리지 말아주세요! (특히, 저희의 본명은 사용하지 마시길~~)